이전 다음 | 기도의 보상들 |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여 | 갈라진 지도의 모세 | 신실한 다니엘 | 하나님의 지도에 순종하라 | 하나님의 지도에 순종하라 | 하나님의 지도에 순종하라

를 뉘우치고 겸손히 엎드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게 되었다." PP 320.4

"Yielding to the spirit of dissatisfaction, Miriam found cause of complaint in events that God had especially overruled. The marriage of Moses had been displeasing to her. That he should choose a woman of another nation, instead of taking a wife from among the Hebrews, was an offense to her family and national pride. Zipporah was treated with ill-disguised contempt." PP 383.2

"불만의 기분에 휩싸린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여 이끌어 가신 일들에서조차 불평할 빌미를 찾았다. 모세의 결혼은 그녀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었다. 모세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않고 다른 민족의 여인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가족과 민족적 자존심에 대한 모욕이었다. 그녀는 지모라를 숨김 없는 경멸의 눈으로 대했다." PP 383.2

"The seditious whisperers were summoned to the tabernacle, and brought face to face with Moses. "And Jehovah came down in the pillar of the cloud, and stood in the door of the tabernacle, and called Aaron and Miriam." Their claim to the prophetic gift was not denied; God might have spoken to them in visions and dreams. But to Moses, whom the Lord Himself declared "faithful in all Mine house," a nearer communion had been granted. With him God spake mouth to mouth. "Wherefore then were ye not afraid to speak against My servant Moses? And the anger of the Lord was kindled against them; and He departed." The cloud disappeared from the tabernacle in token of God's displeasure, and Miriam was smitten. She "became leprous, white as snow." Aaron was spared, but he was severely rebuked in Miriam's punishment. Now, their pride humbled in the dust, Aaron confessed their sin, and entreated that his sister might not be left to perish by that loathsome and deadly scourge. In answer to the prayers of Moses the leprosy was cleansed. Miriam was, however, shut out of the camp for seven days. Not until she was banished from the encampment did the symbol of God's favor again rest upon the tabernacle. In respect for her high position, and in grief at the blow that had fallen upon her, the whole company abode in Hazeroth, awaiting her return." PP 384.3

"반역적인 소문을 퍼트리던 자들은 성막으로 소환되어 모세와 대면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사 성막 문에 서시며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주장은 부정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내 온 집에서 신실한 자라고 선언하신 모세에게는 더 가까운 교제가 허락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입에서 입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째하여 내 종 모세를 대적하여 말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이에 주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타올랐고, 주님께서는 떠나가셨다.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나타내는 구름이 성막에서 사라졌고, 미리암은 벌을 받았다. 그녀는 '눈처럼 하얗게 나병에 걸렸다.' 아론은 벌을 면했으나, 미리암의 형벌을 통해 엄한 책망을 받았다. 이제 그들의 교만이 흙먼지처럼 꺾이자, 아론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누이가 그 혐오스럽고 치명적인 재앙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애원하기 위해 간청했다.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 나병은 치유되었다. 그러나 미리암은 7일 동안 진영 밖으로 쫓겨났다. 그녀가 진영에서 추방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다시 성막 위에 머물렀다. 그녀의 높은 지위를 존중하고, 그녀에게 닥친 재앙을 애도하며, 온 회중은 하루씩에 머물며 그녀의 귀환을 기다렸다." PP 384.3

5월 7일 목요일

모세가 민족을 위해 중보하다

Read Exodus 32:31, 32. What does this teach us about Moses and prayer?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구절은 모세와 기도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Unless punishment had been speedily visited upon transgression, the same results would again have been seen. The earth would have become as corrupt as in the days of Noah. Had these transgressors been spared, evils would have followed, greater than resulted from sparing the life of Cain. It was the mercy of God that thousands should suffer, to prevent the necessity of visiting judgments upon millions. In order to save the many, He must punish the few. Furthermore, as the people had cast off their allegiance to God, they had forfeited the divine protection, and, deprived of their defense, the whole nation was exposed to the power of their enemies. Had not the evil been promptly put away, they would soon have fallen a prey to their numerous and powerful foes. It was necessary for the good of Israel, and also as a lesson to all succeeding generations, that crime should be promptly punished. And it was no less a mercy to the sinners themselves that they should be cut short in their evil course. Had their life been spared, the same spirit that led them to rebel against God would have been manifested in hatred and strife among themselves, and they would eventually have destroyed one another. It was in love to the world, in love to Israel, and even to the transgressors, that crime was punished with swift and terrible severity. PP 325.3

"만약 죄악에 대해 신속히 형벌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똑같은 결과가 다시 나타났을 것입니다. 땅은 노아 시대처럼 타락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죄인들을 살려두었다면, 가인의 목숨을 살려준 것보다 더 큰 재앙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수백만 명에게 심판을 내릴 필요를 막기 위해 수천 명이 고통을 겪게 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많은 이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은 소수를 벌하시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저버렸으므로, 그들은 신성한 보호를 상실했고, 방어 수단을 잃은 채 온 민족이 적들의 세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그 악이 즉시 제거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곧 수많고 강력한 적들의 먹잇감이 되었을 것이다. 그 범죄가 즉시 처벌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였을 뿐만 아니라, 후세 모든 세대에게 교훈이 되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그리고 죄인들 스스로에게도 그들의 악한 행로를 단절시키는 것은 그 못지않은 자비였다. 만일 그들의 목숨이 살려졌다면, 그들을 하나님께 반역하게 했던 바로 그 정신이 그들 사이의 증오와 분쟁으로 드러났을 것이며, 결국 그들은 서로를 멸망시켰을 것이다. 그 범죄가 신속하고도 무서운 엄중함으로 처벌받은 것은 세상을 향한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심지어 범법자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PP 325.3

"As the people were roused to see the enormity of their guilt, terror pervaded the entire encampment. It was feared that every offender was to be cut off. Pitying their distress, Moses promised to plead once more with God for them. PP 326.1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중대한지 깨닫고 경악하자, 공포가 온 진영에 퍼졌다. 모든 범법자가 멸망당할까 두려워했다. 모세는 그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위해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간구하겠다고 약속했다." PP 326.1

"'Ye have sinned a great sin,' he said, 'and now I will go up unto the Lord; peradventure I shall make an atonement for your sin.' He went, and in his confession before God he said, 'Oh, this people have sinned a great sin, and have made them gods of gold. Yet now if Thou wilt forgive their sin—; and if not, blot me, I pray Thee, out of Thy book which Thou hast written.' The answer was, 'Whosoever hath sinned against Me, him will I blot out of My book. Therefore now go, lead the people into the place of which I have spoken unto thee: behold, Mine Angel shall go before thee: nevertheless, in the day when I visit, I will visit their sin upon them.' PP 326.2

"너희는 큰 죄를 지었다구고 그가 말하였다. '이제 내가 여호와께 올라가리니, 어쩌면 너희의 죄를 속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는 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말하였다. '오,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고,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그렇지 않다면, 주께서 기록하신 주님의 책에서 저를 지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대답은 이러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자는 누구든지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그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나의 천사가 네 앞에 갈 것이나, 내가 벌을 내릴 날에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갚으리라.'" PP 326.2

"In the prayer of Moses our minds are directed to the heavenly records in which the names of all men are inscribed, and their deeds, whether good or evil, are faithfully registered. The book of life contains the names of all who have ever entered the service of God. If any of these depart from Him, and by stubborn persistence in sin become finally hardened against the influences of His Holy Spirit, their names will in the judgment be blotted from the book of life, and they themselves will be devoted to destruction. Moses realized how dreadful would be the fate of the sinner; yet if the people of Israel were to be rejected by the Lord, he desired his name to be blotted out with theirs; he could not endure to see the judgments of God fall upon those who had been so graciously delivered. The intercession of Moses in behalf of Israel illustrates the mediation of Christ for sinful men. But the Lord did not permit Moses to bear, as did Christ, the guilt of the transgressor. 'Whosoever hath sinned against Me,' He said, 'him will I blot out of My book.'" PP 326.3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은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선행이든 악행이든 충실히 기록된 하늘의 명부로 향하게 됩니다. 생명책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러 나아온 모든 이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만일 그들 중 누구라도 하나님을 떠나, 죄에 대한 완고한 고집으로 인해 마침내 성령의 감화에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다면, 심판 때에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이며, 그들 자신은 멸망으로 내어주어질 것입니다. 모세는 죄인의 운명이 얼마나 끔찍할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버림받게 된다면, 그는 자신의 이름도 그들과 함께 지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온 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가 중보한 일은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세가 그리스도처럼 범법자의 죄책을 짊어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거역하여 죄를 범한 자는 누구든지, 내가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 버리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PP 326.3

5월 8일 금요일

더 깊이 생각해 볼 점

"Romanism in the Old World and apostate Protestantism in the New will pursue a similar course toward those who honor all the divine precepts. GC 615.2

"구개계의 로마 가톨릭과 신세계의 배교한 개신교는 모든 신성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향해 비슷한 행보를 보일 것이다." GC 615.2

"The people of God will then be plunged into those scenes of affliction and distress described by the prophet as the time of Jacob's trouble. "Thus saith the Lord: We have heard a voice of trembling, of fear, and not of peace.... All faces are turned into paleness. Alas! for that day is great, so that none is like it: it is even the time of Jacob's trouble; but he shall be saved out of it." Jeremiah 30:5-7. GC 616.1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선지자가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묘사한 그 고통과 근경의 현장 속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떨림과 두려움의 소리를 들었으니, 평안의 소리가 아니로다.... 모든 얼굴이 창백해졌도다. 아아! 그 날은 크니, 그와 같은 날이 없도다. 이는 곧 야곱의 환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30:5-7. GC 616.1

"Jacob's night of anguish, when he wrestled in prayer for deliverance from the hand of Esau (Genesis 32:24-30), represents the experience of God's people in the time of trouble. Because of the deception practiced to secure his father's blessing, intended for Esau, Jacob had fled for his life, alarmed by his brother's deadly threats. After remaining for many years an exile, he had set out, at God's command, to return with his wives and children, his flocks and herds, to his native country. On reaching the borders of the land, he was filled with terror by the tidings of Esau's approach at the head of a band of warriors, doubtless bent upon revenge. Jacob's company, unarmed and defenseless, seemed about to fall helpless victims of violence and slaughter. And to the burden of anxiety and fear was added the crushing weight of self-reproach, for it was his own sin that had brought this danger. His only hope was in the mercy of God; his only defense must be prayer. Yet he leaves nothing undone on his own part to atone for the wrong to his brother and to avert the threatened danger. So should the followers of Christ, as they approach the time of trouble, make every exertion to place themselves in a proper light before the people, to disarm prejudice, and to avert the danger which threatens liberty of conscience." GC 616.2

"야곱이 에서(창세기 32:24-30)의 손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씨름했던 그 고통의 밤은,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경험을 상징합니다. 에서에게 주어질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 속임수를 썼던 야곱은, 형의 살해 위협에 겁을 먹고 목숨을 건 도피를 떠났습니다. 수년간 망명 생활을 한 후,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내와 자녀들, 양 떼와 소 떼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떠났다. 고향 땅의 경계에 다다랐을 때, 그는 분명 복수를 꾀하고 있을 에사우가 전사들을 이끌고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무장도 방어 수단도 없는 야곱의 일행은 폭력과 학살의 무력한 희생양이 될 처지였습니다. 게다가 불안과 두려움의 짐에 더해, 이 위험을 초래한 것이 바로 자신의 죄라는 자책감의 짓눌리는 무게까지 더해졌습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었고, 유일한 방어 수단은 기도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형에게 저지른 잘못을 속죄하고 덕져오는 위험을 막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다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환난의 때가 다가올 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올바르게 드러내고, 편견을 해소하며,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GC 616.2

추가 연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WhatsApp: (+63)961-954-0737
contact@advancedsabbathschool.org